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 경험

김성혁*, 김순영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부

Adaptation Experiences of Mal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eong-Hyuk Kim*, Soon-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적응 경험의 구성요소와 도움을 주는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지도적 중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 7명이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학과 적응 경험의 핵심 구성요소는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향', '타협과 마음 다스림',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요약되었다. 이 구성요소들 간에는 인과적, 축진적, 순환적 특성을 보여주었고, 학과 적응과정은 시간적 맥락에 따라 구조화 하고 있다. 이들이 원만한 학과 적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력 강화, 확고한 진로의식 고취, 적응 전략의 채택 등 자신의 내적 통제가 중요하였으며, 가족과 친지, 선배 및 학과 교수의 지지가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면,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률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학과 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대처방식과 실천적 지지체계의 구축 및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educational intervention by discovering the components and factors related to the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 The participants were seven mal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The main components of adaptation experience of participants were summarized into four categories: 'hopes and expectations for the future careers,' 'conflicts and wandering under realistic issues,' 'compromise and emotion management,' and 'efforts for self-growth.' Causative, accelerative, and recursive characteristics were shown among these components. The adaptation process was structured in the temporal context. The results suggest that for amicable adaptation, internal controls, such as 'improving willpower,' 'inspiring solid career awareness,' and 'selecting adaptation strategy' were all critical. Moreover, the support of families, relatives, college seniors, and department professors were revealed as the factors that help in the adaptation experiences. Based on the result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dropout rates by maladapta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and analyze possible factors that contribute to dropout and maladapt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various coping methods and practical support systems, as well as to develop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s.

Keywords : Adaptation experience, Department of nursing, Male nursing students, Nursing profession,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간호직은 전통적으로 여성 고유의 직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으나 최근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남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Seong-Hyuk Kim(Cheju Halla Univ.)

Tel: +82-64-741-7652 email: kshlove@chu.ac.kr

Received July 4, 2016

Revised (1st August 3, 2016, 2nd August 10,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성의 수(전체 합격자 중 남성의 비율)는 2004년에 121명(1.1%)에서 2008년 449명(4.0%), 2012년 959명(7.5%), 2016년에는 1,733명(9.9%)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성간호사의 누적인원은 2004년에 829명이었던 것이 2008년 2,128명, 2012년 5,183명, 2016년에는 10,542명[1]으로 급증하였다.

최근 간호학과에 남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결정요인으로 취업의 용이성, 직업적 안정성 및 자아실현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결과[2-4]라 할 수 있으며, 남성 간호사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은 간호전문직에 남성의 유입을 점차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간호전문분야는 남성적 특성이 강점으로 부각되는 분야가 있고[2], 이러한 분야에서 남성간호사들은 여성간호사에 비해 더욱 능률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간호전문직에 대한 확실한 선택 동기를 가지고 입학한 남학생이라 할지라도 학과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학과에서 남학생들은 여성 중심의 분위기, 불평등한 실습기회, 여성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고립, 정보교환의 부족, 친구의 지지부족, 남성 교수와 남성 선배의 역할모델 부족, 협소한 대인관계, 남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과 불안[5-6] 등 적응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간호직은 여성 직업이라는 편견적 사회적 통념과 여성 지배적인 학과 분위기는 남학생들이 학과생활 적응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간호는 여성 직업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은 남학생들이 간호전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가치와 신념 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직업적 정체성을 갖는데 혼동을 주게 된다[2].

따라서 간호전문직의 업무분야별 특성과 성 역할에 대한 직업선택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학과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전문직업인으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과에서 남학생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원만한 적응을 하게 된다면 남성적 특성이 강점으로 부각되는 간호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 특성에 따른 업무수행의 보완적 차원에서 간호전문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남자 간호학생의 학

교적응 장애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7], 남자 간호대학생의 생활과 전공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2-4,7-8], 남자간호대학생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9],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인식 유형[10], 남자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경험 연구[11]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의 경험세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4,8]가 있으나 근거이론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남학생 비율이 극소수였던 2011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남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학과 적응 경험의 이해를 통하여 이들이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극복하고 간호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회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학생 위주의 학과 분위기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중재적 기초 자료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Giorgi[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학과 적응의 구성요소와 도움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학과생활 적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지도적 중재에 필요한 지지체계의 구축과 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 지식으로 활용되어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간호학과에 남학생 유입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의 경험적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Giorgi[12]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현상학은 철학적 이념을 기초로 하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인본주의적 실천으로 간호학 연구에도 응용되고 있으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상학 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경험의 의미나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13].

2.2 연구 참여자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경험을 실제로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선정 절차는 학과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남학생의 명단을 확보하고 학년별로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여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대상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된 참여자와의 면담은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여 7명이 참여하였다. 연구기간 중에 학년 승급이 이루어져, 4학년 2명, 3학년 2명, 2학년 2명과 3월에 입학한 신입생 1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 7명 중 군필자는 3명이었다.

2.3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들은 대학에서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평소에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고 질적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서는 질적 연구에 대한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 전반에 대한 탐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제1저자의 경우에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다수의 질적 연구 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4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이며,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참여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면담 전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심층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루어졌다. 면담 장소는 서로 대화가 방해받지 않으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빈 토론실이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일상적인 대화로부터 시작하여 참여자가 편안하게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주 질문으로 시작하여 필요 시 보조질문을 하여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시

주 질문은 개방적 질문을 통하여 여학생 다수의 집단 내에서 소수 남학생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편견이나 의도성을 최소화 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원 자료와 수차례 비교하면서 컴퓨터에 입력한 후 Giorgi[14]가 제시한 7단계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필사한 자료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경험의 윤곽을 파악하고자 숙고하였다.

둘째, 참여자의 진술문 중에서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 면담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셋째, 참여자가 진술한 단어, 구, 문장, 단락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가 전환되는 자료를 찾아 표시하여 의미 단위를 확인하여 작성하였다.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필사한 자료는 총 25쪽 분량으로 86개의 의미단위 목록이 작성되었다.

넷째, 유사한 의미 단위들을 분류하여 주제 범주를 찾고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다섯째, 주제들은 연구자의 언어로 구체화하여 중심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험의 구성요소를 작성하여 각 참여자에게 어떻게 이 구성요소들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였다.

여섯째, 주제범주들의 전후맥락과 관계성 및 관점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들을 합성하여 학과생활 적응에 대한 경험의 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서술하였다.

일곱째, 상황적 구조적 진술을 합성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이해되는지를 확인한 후 일반적 구조적 진술을 서술하였다.

자료의 분류 절차는 참여자와의 비구조적 면담을 통하여 드러난 의미에 따라 잠정적인 주제를 확인하였고, 주제를 찾아낼 때까지 참여자와의 추가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비교 대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의 전 과정은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어떻게 입학에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찾고, 입학 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며, 학과 적응 경험이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즉 간호학과 적응 요인이라는 주제를 발견할 때까지 탐구의 영역을 확인하고 관련 질문을 만들어 답을 얻어내는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학과 적응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학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Kitto 등 [15]이 제시한 절차적인 엄격성과 해석적 엄격성 및 완성도와 평가의 엄격성을 고수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면담시간을 약속하였으며, 연구의 목적, 방법, 면담내용의 녹음과 기록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절대 사용하지 않겠으며, 참여자의 사생활은 비밀이 유지되며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을 중도에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자유의사로 참여를 희망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참여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동의한 사실을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참여자의 신원과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는 삭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학과 적응의 구성요소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 경험의 구성요소는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 ‘타협과 마음 다스림’,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축약할 수 있다(Table 1).

참여자들이 간호학과에 입학할 결정하게 되는 요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취업률이 높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주된 선택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입학 후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성 다수의 집단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면서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거쳐 직면한 문제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 받기, 탈출구 찾기 등을 통하여 현실과 타협하고 자신의 마음 다스리기를 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긍정적 적응 과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면서 일부 학생들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휴학, 전과 및 자퇴

등 부정적 탈출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3.1.1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

참여자들이 간호학과를 입학하게 된 주요인은 취업이 쉽다는 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뚜렷한 진로, 사회봉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직업,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입학을 결정한 것으로 회상한다. 이 이외에도 일부의 참여자는 간호 분야에서 남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확실한 취업 보장이 될 것이라는 점과 소수인 만큼 그에 따른 보상과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여성 중심의 집단에서 소수의 남성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학 결정을 망설였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본인의 의사이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 및 선생님 등 주위에서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의 학과 적응의 구성요소 중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구성요소에는 ‘높은 취업률’, ‘뚜렷한 진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의 하위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참여자에게서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구성단위로 ‘안정된 직업’, ‘희소성에 대한 이득’ 및 ‘이성교제의 대상을 찾기 쉬운 장점’ 등을 제시하였다.

원래 저는 의료계통에 관심이 많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걸 좋아했는데 TV에서 남자간호사 다큐멘터리 방영할 때 보니까 내게 딱 맞을 것 같고 선생님이란 부모님도 전망이 좋다고 하셔서 선택했습니다. (참여자 1)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했는데, 다른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도 어렵고 자기 전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지만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진로가 뚜렷하니까 다른 학과에 다니는 제 친구들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참여자 2)

친인척 중에는 간호사가 많고 특히 누나가 간호사에서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요즘 취업난이 심각한데 간호학과에 들어가면 취업도 잘되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으니 좋겠다고 추천해서 원서 쓰려고 하니깐 선생님이 공대를 추천하면서 “남자가 왜 간호학과를 가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데도 3군대를 지원해서 모두 합격했지만 고민하다가 결국 간호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5)

Table 1. Components of Adaptation Experience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Participants	Hope and Expectation	Conflict and Wandering	Compromise and Emotion Management	Efforts for Self-Growth
Participan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gh employment rate Distinct career path Social service enabling occup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judiced eyes of others Characteristic of female majority department Shortage of role models Competitive atmosphere Considering a leave of absence or a major 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ing endured Being absorbed Being given up Being suppor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ving smooth Inter- 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oreign language Being faithful for college life
Participant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gh employment rate Distinct career path Benefits of scar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der differences Shortage of role models Female-biased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a leave of absence or a major change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ing understood Being assimilated Being given up Being suppor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tting acquainted with the problems Learning foreign language Being confident for the future Doing the best in given reality Setting up a distinct career path
Participant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gh employment rate Distinct career path An occupation enabling social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der differences Prejudiced eyes of others Characteristic of female majority department Competitive atmosphere Seniority level based atmosphe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ing understood Being endured Being absorbed Being suppor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bracing the others Having smooth Inter- personal relationship Being faithful for college life Being confident for the future Living with a sincere attitude
Participant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gh employment rate Stable occupation Benefit of easily finding the dating part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judiced eyes of others Misunderstanding and fear Shortage of role models Female-biased education program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ing endured Being absorbed Being given up Being suppor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tting acquainted with the problems Learning foreign language Being faithful for college life Doing the best in given reality Setting up a distinct career path
Participant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gh employment rate Distinct career path Enabling healthcare management for acquain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judiced eyes of others Misunderstanding and fear Characteristic of female majority department Stress caused by heavy workload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ing understood Being endured Being suppor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tting acquainted with the problems Embracing the others Having smooth Inter- 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oreign language Setting up a distinct career path
Participant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gh employment rate Stable occu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der differences Prejudiced eyes of others Characteristic of female majority department Female-biased education program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ing endured Being assimilated Being absorbed Being suppor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tting acquainted with the problems Having smooth Inter- personal relationship Learning foreign language Being confident for the future Living with a sincere attitude
Participant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High employment rate Diversity of work fields An occupation enabling social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judiced eyes of others Misunderstanding and fear Shortage of role models Competitive atmosphere Enlisting for military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ing understood Being endured Being assimilated Being absorbed Being suppor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bracing the others Being satisfied Learning foreign language Being faithful for college life Being confident for the future

3.1.2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향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면서 갈등과 방향을 경험한다. 입학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현실적 문제는 여성 다수의 집단에 소수의 남성이 유입된 데 대한 불편함과 어색함, 학과 내외의 다른 사람들이 간호사는 대부분 여성들이는데 왜 남성이 간호학을 전공하느냐고 하는 편견적인 시선과 오

해에 따른 저항감을 경험한다. 점차적으로 여성 편향적인 교육 분위기, 타 학과 친구들에 비해 학습량이 많은 데 대한 부담감, 경쟁적인 분위기, 직업적 역할모델의 제한 등 여성 다수의 학과 특성에 직면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거나 탈출구를 찾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군 입대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의 학생들은 직면한

문제를 건디지 못하고 학교생활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방황하거나 휴학 또는 전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의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의 구성요소에는 ‘성 차이’, ‘여성 다수의 학과 특성’, ‘탈출구 찾기’의 하위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참여자에게서 타인들로부터 여학생과 교제 한다는 ‘오해와 두려움’, ‘서열식 분위기’ 및 ‘학습량이 많은데 대한 스트레스’ 등을 제시하였다.

요즘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TV에서도 보면 간호사는 당연히 여자 간호사만 등장시키고, 사람들도 간호사는 여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를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가 간호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1)

여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이성관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학생들이 질투도 하는 것 같고, 여학생들과 가깝게 지내기가 두렵고 눈치가 보입니다. (참여자 2)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고 집에서도 형들만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입학했을 때 여학생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당황했습니다. 거기에 다 친구들 중에 “야! 남자간호사가 뭐냐”라고 하면서 놀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3)

여자 교수님들 중에 어떤 분은 수업 중에 여학생들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성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구실을 옮기거나 학과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남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우리(남학생)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시키시고 일 하다보면 이런 일은 여학생들도 할 수 있는데 꼭 우리(남학생)에게만 시킨다는 생각이 들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참여자 4)

제 친구 중에는 여학생들과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실습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많이 어색해 하면서 도저히 못 견디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자 5)

병원 실습 때에도 남학생들은 분만실이나 신생아실 같은 데는 잘 배치하지 않고 탈의실도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여학생과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6)

여학생들은 대체로 남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민감하고 경쟁심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성적과 관련되면 무조건 이기적이고 다른 학생에게 배려하는 법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는 공유하려 하지 않고, 팀 활동에서도 발표를 하거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 찾기 같은 것은 남학생에게 미루거나 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자 7)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 입학한 후 학교생활을 하면서 ‘성 차이’와 ‘여성 다수의 학과 특성’에서 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의 정도는 개인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예상했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며, 학교생활을 더 모범적으로 하면서 극복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방황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군 입대, 일반휴학, 전과 및 자퇴 등의 탈출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입학 동기인 남자 친구는 여학생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더니 결국 학교 그만 두고 재수해서 다른 대학으로 가고, 또 어떤 친구는 다른 학과로 전과 했습니다. (참여자 3)

지금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도 진학해서 ‘남자가 왜 간호학과에 다니느냐’고 비꼬는 친구들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4)

군대 가기 전에는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했는가 생각하면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면서 될 때로 되라고 생각해서 공부도 게을리 하다가 군대를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제대하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고 여학생들에게도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지금은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5)

3.1.3 타협과 마음 다스림

참여자들은 학과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왜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학과 선택의 의미에 대하여 반추한다. 학과생활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저항과 좌절, 이로 인한 불안, 무력감, 나태함 등의 부정적 의미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며 견디고, 여성 다수의 집단에 동화되거나 흡수되고,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기 객관화와 더불어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내면적 성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받기는 가족, 친구, 선배, 교수, 독서 및 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직업적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같은 학과의 선배와 간호학 전공 남성 교수로부터의 지지가 가장 의미 있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이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경험은 직면한 문제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견디기’, ‘동화되거나 흡수되기’, ‘지지받기’의 하위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남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자기주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내고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 말을 들어 주고 맞춰 주려고 노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여자 1)

사실 저도 2학년 초기에 학교 그만 두고 재수해서 다른 학과로 가볼까 생각했는데 그 때 남자 간호학 전공 교수님이 우리를 맡게 되면서 아 나도 열심히 해서 교수님처럼 되어 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려놓고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4)

여학생들에게 맞춰주다 보니까 저도 여학생들처럼 말이 많아지고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6)

여학생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전에는 많이 부딪쳤는데 그러고 나면 여학생들은 뒤에서 말이 많으니까 더 힘들고 이제는 여학생들하고는 공감대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참여자 7)

3.1.4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대부분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 과정에서 타협과 마음 다스림을 통하여 직면한 상황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미래에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직업적 가치관 확립에 초점을 맞춘다. 학과생활 부적응으로 고착되었던 자아가 갈등과 방황의 터널을 통해 입학 당시보다 더욱 굳건한 자신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게 되면서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승화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과 적응의 구성요소에는 ‘직면한 문제에 익숙해지기’, ‘미래 진로에 대하여 확신하기’,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의 하위구조를 나타냈다.

참여자 1, 5, 7의 경우에는 입학 초기에 직면한 문제로 심한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였으나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과정을 거쳐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현실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갈등과 방황의 어려웠던 과정을 개인적인 성장을 하는 도전적 계기로 받아들여 문제를 극복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변화는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입학을 결정했던 시점보다 미래에 대하여 더 큰 꿈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처음에는 여학생들하고 많이 부딪쳤는데 지금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주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여학생들과 관계가 원만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대하니까 여학생들도 마음을 열어주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1)

친척 중에 간호사가 많고 해서 부모님 권유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학과 분위기가 남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힘들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남자 교수님과 선배들이 대인관계랑 적응하는 방법이란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걸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고 진로가 다양하다는걸 아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5)

입학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남학생이 왜 간호학과 다니느냐는 식의 말을 하고 해서 이상한 감정이 들고 다른 학과로 전과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부딪치

다 보니 이제는 그럴 때 웃으면서 잘 설명해 주니까 그려나고 하면서 친구들은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참여자 7)

참여자 6은 입학 후 성 차이로 인한 불편감과 어색함이 다른 남학생들에 비해 더욱 심하여 학과생활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방향을 심하게 겪은 사례이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불성실한 학교생활과 휴학하여 재수하고 다른 학과에 재입학 하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학과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황하였으나 군 복무 후 모범적으로 학과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전공 학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뚜렷한 설정으로 자기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이 갈등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익숙해지고 간호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졸업해서 임상에 나갔을 때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에서 경력을 쌓고 너성함과 같은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참여자 6)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직업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아가고 있다. 높은 취업률과 뚜렷한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여 성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과 불편함, 여학생 다수의 학과 특성 등에 따른 갈등과 방황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견디며, 역할모델을 비롯하여 타인들로부터 지지받기 등을 통하여 자기 성찰이라는 능동적인 문제해결식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과정을 거쳐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행동을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학공부와 전공을 더욱 열심히 학습하고,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역량을 더욱 개발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료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적응 경험의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 ‘타협과 마음 다스림’,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과 적응’으로 축약할 수 있었으며, 이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는 인과적, 촉진적, 순환적 특성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

는 참여자들의 경험적 구조는 결국 현실적 적응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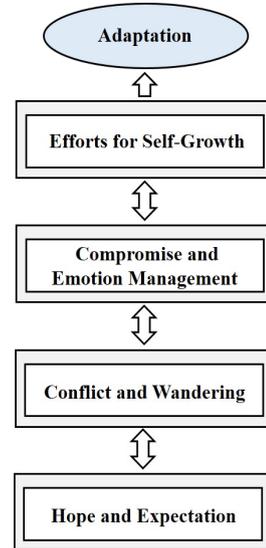


Fig. 1.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3.2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

참여자들의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의지력의 강화’, ‘지지체계의 도움’, ‘확고한 진로인식’ 및 ‘적응 전략의 채택’ 등으로 나타났다.

3.2.1 의지력 강화

참여자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고,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기 까지는 자신의 의지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들에게 간호전문직은 여성 위주의 직업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왜곡된 시선으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어색함과 부담감 등은 자신의 의지력을 강화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여성 다수의 집단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직면한 문제를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성 차이를 이해하고 잘 견디며, 속한 조직에 동화되거나 흡수하는 역제력과 인내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자 간호학 교수의 조언과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되는 졸업한 선배와의 만남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간호사는 주사 놓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왜 간호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며 비꼬는 친구들에게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명도 해 주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4)

간호학 전공 남자 교수님의 경험담과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소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실습 나가서 남자 선배들을 만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니까 더 열심히 학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6)

여학생들이 당연한 것처럼 도와달라거나 자기가 해도 되는 걸 시킬 때 짜증도 나지만 참아서 기사도를 발휘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술선수범하니까 인정도 받고 부딪칠 일이 없어졌습니다. (참여자 7)

3.2.2 지지체계의 도움

지지체계(가족, 친구, 선배, 교수, 독서 및 방송)는 참여자들이 학과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었으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부모와 교수의 조언과 격려는 힘든 상황에 봉착할 때 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과 친구가 간호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해 주거나 전공 교수 및 선배들이 간호직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거나 희망적인 조언 및 격려는 참여자들의 학과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간호사라서 참 다행이야’라는 책을 쓰신 우리 선배의 특강과 책을 보고 감동 받았고, 전에 TV에서 남자 간호사의 역할을 다큐로 보여줬었는데 사실적이어서 좋았고 남자 간호사의 역할에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3)

교수님들 중에서도 입장에서 남자 간호사가 필요하고 간호전문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기분이 좋고 자긍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5)

집에서 부모님이 전공 잘 선택했다고 하시면서 적극 밀어주시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수업시간에 해 주시는 격려가 크게 도움 됩니다. (참여자 7)

3.2.3 확고한 진로의식

참여자들이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주요인은 높은 취업률과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직업생활과 더불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갈등과 방황 과정을 겪는 동안 입학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던 간호사의 진출분야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은 학과 적응의 긍정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간호사의 주 역할이라고 인식되었던 임상간호 외에도 자신의 진출분야가 전문간호사 영역, 산업간호, 지역간호, 학교간호 등의 지역사회간호 영역, 너싱홈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개업과 운영, 해외진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다양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인식하면서 갈등과 방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긍정적인 적응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다.

처음에는 간호사 진로가 그렇게 다양한 줄 몰랐는데 제가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제 진로가 결정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고민 같은 거 안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참여자 4)

아직까지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간호학과 졸업하면 병원 간호사 경력 쌓으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5)

저는 임상경력을 몇 년 쌓고 나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도 도와주신다 하고 (참여자 7)

3.2.4 적응 전략의 채택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은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여성 다수의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어색함’, ‘불편함’, ‘당황함’, ‘이질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적응 전략들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적응 전략은 개인적으로 터득되는 경우와 지지체계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상황에 따른 대처전략과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한 태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적응 전략들은 모두가 시의적절하거나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갈등과 방황의 과정에서 벗어나 현실에 잘 적응하다가도 여학생들과의

트러블, 학습의 어려움 및 스트레스 상황 등에 부딪치게 되면 적응과정은 곧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의적절하고 성공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성공적인 학과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제 주장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가급적 말을 들어 주고 맞춰 주려고 노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여자 2)

나도 열심히 해서 교수님처럼 되어 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려 놓고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적이 안 좋게 나올 때면 많이 힘듭니다. (참여자 4)

이제는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어떤 길을 가야겠다고 확실히 정해지니까 여학생들하고도 잘 지내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참여자 5)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고 여학생들에게도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지금은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6)

자료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의지력의 강화’, ‘지지체계의 도움’, ‘확고한 진로’, ‘적용 전략의 채택’으로 축약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Figur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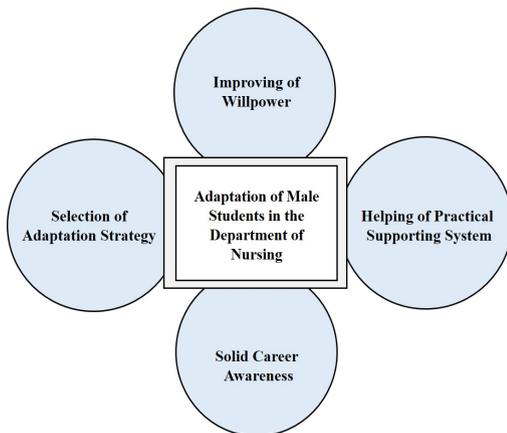


Fig. 2. Factors that help to adapt the department of nursing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적응 경험을 탐색하고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4개의 핵심 구성요소와 적응에 도움을 주는 4가지 핵심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핵심요소들 간의 관계는 인과적, 축진적, 순환적 특성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참여자들의 경험적 구조는 결국 현실적 적응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타 문화에 들어 온 사람들이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단계로 밀월, 위기, 회복, 적응의 단계를 거친다[16]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처음에는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시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서 갈등과 방황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다가 새로운 조직과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타협과 마음 다스림을 통하여 회복단계에 이르게 되고, 결국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승화하는 적응단계에 이르고 있다.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적응 경험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용이하고 주변사람들에게는 물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자기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학의 의미를 부여하며, 여학생들과도 잘 지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학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Cho와 Kim(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진로에 대한 목적성이 뚜렷하고 적성에 따라 진학함으로써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과 방황을 겪게 되면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으로 여성 다수의 집단에 노출되면서 성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 어색함 등의 문제와 여학생들과의 대인관계 및 여학생 위주의 학과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에 저항하게 된다. 대학생활 안에서의 교우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으로 대학생활 적응의 큰 의미를 가지며,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18)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여학생들과의 교우관계가 쉽게 극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며 이질감, 외로움, 오해 받는데 대한 두려움 등 다양

한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학을 선택한 남학생들이 겪는 장애는 남학생을 위한 지도력 부재, 간호 분야에서 남성의 경력부재, 여성 중심의 강의, 또래 지지집단의 부재 [2] 라고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간호학은 여성 중심의 교과과정, 시험 및 학습 형태이고 실습 특성상 남학생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19, 20]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성역할 고정 관념과 여학생 중심의 환경과 관련하여 심리적 갈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21], 성 역할 구분이 뚜렷한 우리사회의 전통적 성 가치관[22]과 여성성이 내재된 간호학과 간호교육 환경[23]이 남자 간호학생들에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전공만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24], 간호전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가치와 신념을 형성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직업적 정체성을 갖는데 혼동을 주게 되므로 간호전문직이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간호직에 대한 성 고정관념은 극복되어야 한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타협과 마음 다스림’이다. 참여자들은 학과 적응과정에서 갈등과 방황이라는 터널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타협하고 마음 다스림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참여자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의 과정을 거쳐, 타협하고 자신의 마음 다스림을 하게 되는 데에는 개인적인 기질, 인간관계의 원만성, 사회적 경험, 타인의 시선 및 주위에서의 지지 정도 등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참여자들 가운데 평소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성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쉽게 이해하고 소속된 집단에 동화되며, 남자 선배나 교수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는 긍정적인 적응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고착된 문제로 인식하며 여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방인으로 지내는 학생의 경우에는 휴학, 전과, 자퇴 등의 부정적인 적응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과 같은 개인적 성향은 남자 간호학생의 학과생활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또한 참여자들의 겪는 갈등과 방황의 과정에서 타협하는 방식은 다양하여 휴학 후 재수를 하거나 군 복무의 사회

적 경험을 거쳐 대부분은 복학하여 학과생활을 긍정적으로 하는 반면, 새로운 진로를 찾아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복학 초반에는 새로운 동기들과 나이 차이로 인하여 어색한 관계를 보이지만 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 구성요소는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이다. 참여자들은 갈등과 방황의 경험세계에서 타협과 마음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적응패턴을 거치게 되는데, 긍정적인 적응패턴을 하는 참여자의 경우 결국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승화하는 적응단계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의 대다수는 대중매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용이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연한 기대는 학과생활을 한시적으로 버티게 하는 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과생활 과정에서 간호사의 진출분야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진로 의식은 학과생활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간호전문분야에 다양한 영역의 진로가 개방되어 있으며,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여하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학과생활 적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학과 남학생들은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입학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게 되며,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학과생활을 위하여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타협과 마음 다스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전과, 자퇴 등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학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는 ‘의지력의 강화’, ‘지지체계의 도움’, ‘확고한 진로의식’ 및 ‘적극적 적응 전략의 채택’ 등이다. 첫째, 이들의 개인적인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학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신과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성 차이로 인한 어색함과 불편감, 외로움 등의 문제와 여학생 위주의 편향적 교육 분위기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참아내는 인내력과 억제력 및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긍정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에 있어 개인적인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이들의 적응에 지지체계를 통한 도움은 매우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자기개발을 한 남자 간호사 및 남자 간호학 전공 교수의 조언과 지지는 갈등과 방황의 과정으로부터 긍정적인 적응과정으로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과 관련된 성 역할 정체성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McLaughlin 등[25]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성 역할 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저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임상현장에서 성 차별에 대한 방지책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셋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진로의식을 가진 참여자의 경우는 학과생활을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간호전문직의 다양한 진출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인적인 적성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진출분야를 선정하고 확고한 진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학과생활을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넷째, 이들이 학과 적응 과정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적응 전략을 채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성공적인 학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갈등과 방황 과정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을 때에는 긍정적인 타협과 마음 다스림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군 복무 등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간호학과 남학생들은 학과 적응 과정에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성 역할 정체성에 대한 통념과 지지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학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도체계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적응 경험을 탐색하고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학과 적응을 위한 지도적 중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의 학과 적응 경험의 핵심 구성 요소는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 ‘현실적 문제에

따른 갈등과 방황’, ‘타협과 마음 다스림’,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축약되었다. 이 구성요소들 간에는 인과적, 촉진적, 순환적 특성을 보여주었고, 학과 적응과정은 시간적 맥락에 따라 구조화 하였다.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학과 적응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력 강화, 확고한 진로의식 고취 등 자신의 내적 통제가 중요하였으며, 가족과 친지, 선배 및 학과 교수의 지지가 중요함을 나타냈다.

본 연구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의 원만한 학과 적응을 위한 지도적 중재에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생활 적응과정에서 남학생이기 때문에 어색함, 불편함, 이질감, 외로움, 무력감 등의 심리적 문제로 갈등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수용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신이 경험하는 적응상의 문제를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학과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을 고려하여 지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입학 초기에 학과생활 부적응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도피하는 등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도교수의 심층적 상담 및 바람직한 대학생활과 미래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특히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간호학을 전공한 남자 교수 및 졸업 선배 등의 조언과 격려 기회를 갖도록 하는 지지체계 형성은 직업적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간호학과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률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과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대처방식과 지지체계의 영향에 대하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경험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나 실제 대처방식과 지지체계의 효율성을 탐색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n Nurses Association. Over 1,000 male passed national nursing licensure exam [Internet].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c2016[cited 2013 Mar 05]. Available From:

- <http://www.nurses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x?sSection=61&idx=6701> (accessed Mar., 15, 2016)
- [2] Evans J. "Men nurses: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7, no. 3, pp. 321-328, Aug., 2004.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4.03096.x>
- [3] O. B. Jung, H. J. Park, "Experience on Delivery Room Practice of Mal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7, no. 1 pp. 64-76, Mar., 2011.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1.64>
- [4] I. S. Park,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Global Health and Nursing*, vol. 1, no. 2, pp. 55-64, July, 2011.
- [5] O'Lynn CE.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bala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3, no. 5, pp. 229-236, May, 2004.
DOI: <http://dx.doi.org/10.3928/01484834-20040501-08>
- [6] M. H. Kim, "A study of male students' experience majoring in nurs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0, no. 2, pp. 183-193, 2004.
- [7] M. Kim, S. H. Cho, G. S. Jeon,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A systemic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3, pp. 109-119, 2014.
DOI: <http://dx.doi.org/10.17547/kjsr.2014.22.3.109>
- [8] J. S. Lee, N. J. Kim, H. J. Doo, J. Y. An, Y. K. Lee,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4, no. 2, pp. 159-169, 2005.
- [9] M. S. Song, Y. R. Park, H. Wee, "Male nurses' Images of male students in nursing university",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 38, no. 1, pp. 37-67, June, 2015.
- [10] M. A. Kim, S. H. Ko, E. Park,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in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23-233, May,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23>
- [11] S. J. Choi, K. M. Park,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Keimyung Nursing Science*, vol. 5, no. 1 pp. 129-139, 2001.
- [12] Giorgi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orkshop on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Seoul: Qualitative Research Center, 2003.
- [13] S. H. Hong,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aring in nursing science", *Research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vol. 50, no. 1, pp. 213-241, 2011.
- [14] Giorgi,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Seoul: Qualitative Research Center, 2004.
- [15] Kitto S. C, Chesters J, Grbich C. "Quality in qualitative research",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vol. 184, no. 4, pp. 243-246, 2008.
- [16] Ward C, Bochner S, Furnham A.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East Sussex: Routledge, 2001.
- [17]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937-294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 [18] J. A. Cho, J. S.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87-59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87>
- [19] Brady MS, Sherrod DR. "Retaining men in nursing programs designed for wome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2, no. 4, pp. 159-162, Apr., 2003.
DOI: <http://dx.doi.org/10.3928/0148-4834-20030401-05>
- [20] Stott A. "Issues in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the male student nurse: implications for reten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s", *Nurse Education Today*, vol. 24, no. 2, pp. 91-97, Feb., 2004.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3.09.005>
- [21] S. J. Choi, "Male Students' lived experience in the female dominant nursing college"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4, no. 1, pp. 52-63, Jun., 2003.
- [22] K. J. Lee, M. Kim,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6, no. 1, pp. 46-57, Feb., 2014.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4.26.1.46>
- [23] Chiarella M, Adrian A. "Boundary violations, gender and the nature of nursing work", *Nurs Ethics*, vol. 21, no. 3, pp. 267-277, May, 2014.
DOI: <http://dx.doi.org/10.1177/0969733013493214>
- [24]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 [25] McLaughlin K, Muldoon OT, Moutray M, "Gender, gender role and completion of nursing education: A longitudi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 30, no. 4, pp. 303-307, May, 2010.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9.08.005>

김 성 혁(Seong-Hyuk Kim)

[정회원]



- 1995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1985년 7월 ~ 1988년 2월 : 국군 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교수
- 2010년 4월 ~ 현재 : 다문화건강학회 편집위원, 논문심사위원
- 2015년 1월 ~ 현재 : 한국노인의료복지학회 이사, 편집위원

- 1988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보건, 다문화건강

김 순 영(Soon-Young Kim)

[정회원]



- 2005년 8월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간호행정학 석사
- 2016년 8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중
- 2015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간호관리학